

일 지역 성인의 흡연실태

정 영 숙 (전북대학교 간호학과)¹⁾²⁾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II. 문헌고찰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영문초록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흡연이 건강에 해로우며 폐암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입증되고, 흡연 행위가 흡연자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인해 주변에 있는 비흡연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널리 인식되면서, 건강사회를 실현하고자하는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에서 흡연을 추방하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담배의 해독에 관한 무수한 많은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는데, 역사상 담배의 해독에 관한 연구만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는 없다(김일순, 1991).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금연은 심장병과 암을 예방하며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결론짓고 범세계적으로 금연운동을 벌이고

있다(김인철, 1991). 담배연기 속에 약 4,000여종의 독성화학물질이 들어 있는데, 그 중에는 수십 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관상동맥 질환으로 대표되는 심장질환, 폐, 후두, 구강, 식도, 방광, 췌장의 암, 폐기종이나 만성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질환, 저 체중아, 전치태반, 태반박리 같은 임신에 따른 각종 합병증, 소화성 궤양, 기타 폐경기 이후 여자들의 골다공증 등 수 많은 질병이 흡연과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금연 운동의 지속적 전개가 “2,000년까지 전 인류에게 건강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간주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Hirayama, 1991).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흡연을 건강 위해요인으로 규정하고 담배를 생산, 판매하는 자에 대해 부과금을 부과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흡연률을 낮추기 위해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흡연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흡연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흡연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1) 이 논문은 1998년도 진안군 건강증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에 의해 이루어졌음.

2) 전북대학교 간호학과 건강증진 연구회

에 대해 사회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있기는 하나, 흡연률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최근에 조사한 각국의 흡연률을 보면,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흡연률이 세계 제1위로 나타났다(1997). 성인 남자의 흡연률은 1990년 68.0%이던 것이 1996년 64.8%로 약간 줄어들기는 했으나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정건작, 1998).

미국의 경우 연간 전체 사망자중 남자 22.0%, 여자 11.0%, 일본의 경우 남자 16.6%, 여자 3.5%가 흡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우 연간 총사망자 250만여 명중 약 3만여 명이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에 의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재전, 1992). 따라서 이들이 흡연을 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흡연관련 질병으로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며, 흡연관련 질병 예방에서는 흡연을 하지 않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 접근 중의 하나는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진안군 지역 성인의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금연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바, 금연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로 진안군 지역 성인의 흡연실태를 조사 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진안군 지역 성인의 흡연실태를 조사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진안군 지역 성인의 흡연률을 파악한다.
- 2) 진안군 지역 성인 흡연자의 흡연 습관을 파악한다.
- 3) 진안군 지역 성인 흡연자의 흡연 동기 요인을 파악한다.
- 4) 진안군 지역 성인 흡연자의 니코틴 의존도를 파악한다.
- 5) 진안군 지역 성인 흡연자의 금연 의지를 파악한다.

II. 문헌고찰

1492년 스페인의 탐험가 콜롬부스가 쿠바의 원주민이 피우던 토바코스(Tobaccos)를 유럽에 소개한 것이

담배의 시초이며, 우리나라는 임진왜란때 일본을 통해 전해져 초기에는 양반계급의 전유물로 사용되다가 1945년 해방 이후 양담배가 상륙하면서 흡연률이 급상승하여 1990년대에는 세계에서도 상위권에 들어서게 됐다.

우리나라 담배 소비량을 보면 1966년도에는 국민 1인당 1,179개피, 18세 이상 인구 당은 2,329개피였던 것이 25년이 지난 1991년도에 와서는 국민 1인당 2,272개피, 18세 이상 인구 당은 3,297개피로 국민 1인당 증가율은 192%, 18세 이상 인구당 증가율은 141.5%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1992).

세계보건기구가 조사한 각국의 흡연률 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남자의 흡연률이 68.2%로 세계 제 1위로 나타났다(WHO, 1997).

과거 대한결핵협회와 껌업조사연구소에서 서로 다른 인구구조와 조사방법을 가지고 시행한 연도별 흡연률 조사를 가지고 1980년 전국인구를 표준 인구로 정하고 연령 교정을 하여 비교해 보면, 성인 남자 연령 교정 흡연률은 1980년에 67.3%이던 것이 1996년에 64.8%로 약간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흡연률은 연령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세 이하 청소년의 흡연률이 1980년대에 20% 수준이던 것이 최근에 40% 이상으로 두배 이상 증가된 것은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반해 40대 이상의 인구에서는 서서히 흡연률이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적신호가 연령층에서 나타나기 시작함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연령층인 20대와 30대의 흡연률은 1980년 이래 1996년 현재까지 계속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믿기 어려운 사실이다(정건작, 1998).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성인의 흡연실태를 조사한 배상숙(1994)의 연구에 의하면, 흡연 시작시기가 남녀 모두 고등학교가 51.7%, 47.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기간은 남녀 모두 4년 이하가 65.8%, 73.9%였으며, 흡연 동기는 남녀 모두 호기심 또는 멋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각각 38.0%, 30.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친구의 권유 또는 압력이라고 하

었다. 즐겨 피우는 담배의 종류로 독한 담배를 피우는 대상자는 남자의 경우 5.8%, 여자의 경우 8.7%였다. 담배 연기를 깊게 흡입하는 대상자는 남자의 경우 57.8%, 여자의 경우 43.5%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현경순(1995)의 연구에 의하면, 흡연자의 일일 흡연량은 대상자의 64.7%가 10~20개피, 18.8%가 10개피 이하, 16.5%가 20~30개피를 흡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의 동기 요인을 밝히려는 연구는 Ikard, Green Horn(1969)의 연구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Ikard등(1969)은 The Horn-Waingnow Smoker Survey를 실시하고 습관, 쾌락, 중독, 부정적 정서 감소, 자극 및 감각-운동만족 등의 6가지 흡연 동기요인을 밝혀냈다. 이후 흡연 동기 요인에 관한 McKennell(1970), Coan(1973), Russell Patel(1974), Costa, Mcrae & Bosse(1980)의 연구가 진행되어 오면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흡연 동기 요인으로 부정적 정서 감소, 습관, 중독, 쾌락, 자극, 감각-운동만족 및 불유쾌한 습관 등의 7가지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오영소, 1991).

흡연의 중요한 장애 중의 하나가 니코틴 의존인데, 이는 지속적으로 흡연을 반복하는 상태로 흡연을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래서 일단 한번 흡연을 하게되면 중단할 수 없는 이유가 니코틴 의존성 때문으로 생각되어, 아예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배상숙, 1994).

니코틴 의존의 진단 기준은 적어도 한달 이상 계속 흡연을 한 사람이 여러 차례 담배를 끊거나 양을 줄이려는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실패했을 경우, 담배를 끊으려는 노력이 금단증상을 보일 경우, 호흡기와 순환기의 장애와 같은 신체적 장애가 흡연으로 인해서 악화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담배를 피우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니코틴 의존으로 진단된다(김일순, 1987).

Fagerstrom(1990)이 개발한 니코틴 의존도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성인의 니코틴 의존도를 측정한 배상숙(1994)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비율이 남자 흡연자의 26.4%, 여자 흡연자의 21.8%로 상당수의 흡연자들이 이미 흡연을 중단하기 힘든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남성 흡연자의 경우 일반적 특성 중 연령, 거주지 형태, 군 경력 등이 니코틴 의존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어릴수록, 하숙을 할수록, 입대 전일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았다.

흡연 습관 중에서 니코틴 의존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은 흡연 시작시기가 중학교일 때, 흡연기간이 5-9년 일 때, 독한 담배를 피울수록, 담배 연기를 깊이 들이 마실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재 흡연자의 금연에 관한 의지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흡연자중 금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70.5% 이었으며, 금연을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라고 응답한 경우가 60.5%이었고(이계은, 1992), 흡연자의 82.5%가 금연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상숙, 1994).

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진안군 지역 성인의 흡연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1998년 12월 28일부터 1999년 1월 6일 현재 진안군에 소재한 11개 읍면 소재지 중 9개 지역을 무작위 선정하여, 이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92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학력, 직업을 조사하였다.

2) 흡연 습관

흡연습관 측정도구는 현재 흡연자의 흡연시작연령, 흡연지속기간, 흡연 시작동기, 흡연량, 담배종류, 담배연기 흡입습관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3) 흡연 동기 요인

흡연 동기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흡연 동기 요인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Horn-Waingrow-Coan 흡연조사에 활용한 “흡연 동기 요인 검사”(Costa, McCrae, Bosse, 1980)를 우리 상황에 맞게 변안한 오영소(1991)의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가지 흡연 동기 요인으로 분류된다. 7가지 흡연 동기 요인은 부정적 정서 감소, 습관, 중독, 쾌락, 자극, 감각-운동 만족, 불유쾌한 습관 등이다.

이 검사는 “항상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부여하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각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 동기 요인이 되는 정도가 강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흡연 동기 요인이 되는 정도가 약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alpha는 .91이었다.

4) 니코틴 의존도

니코틴 의존도 측정도구는 Fagerstrom(1990)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흡연자의 니코틴 의존도 분포는 총 7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부여하여 7-16점까지 배점하고, 각 문항 점수를 합한 총점이 7~9점이면 니코틴 의존도가 “낮은 편”, 10~12점이면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편”, 13점 이상이면 니코틴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 판정하였다.

5) 금연 의지

흡연자의 금연의지 측정도구는 현재 금연의사, 금연을 생각하는 이유, 금연을 시도한 횟수, 금연실패 이유, 금연 권고자, 금연교육의 필요성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기간은 1998년 12월 28일 부터 1999년 1월 6일까지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연구 선정된 진안군 9개 읍면에 소재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협조를 얻어 연구 조사원이 가정방문을 통해 20세 이상의 성인을 면접조사 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범위를 이용하였다.
- 2) 대상자의 흡연률은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률의 차이는 χ^2 test를 이용하였다.
- 3) 흡연자의 흡연습관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범위를 이용하였다.
- 4) 흡연자의 흡연 동기 요인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 5) 흡연자의 니코틴 의존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니코틴 의존도 분포는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흡연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니코틴 의존도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이용하였다. 흡연 습관에 따른 니코틴 의존도의 차이는 ANOVA를 이용하였다. 흡연 동기 요인과 니코틴 의존도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 6) 흡연자의 금연 의지는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령은 20세에서 93세까지 있었으며, 평균 연령은 45.2세이었다. 가장 많은 연령층은 30세~39세가 29.5%(272명), 40세~49세가 25.6%(236명), 50~59세가 19.1%(176명), 60세 이상이 15.7%(145명), 20~29세가 10.1%(93명)이었다.

남자가 65.7%(606명)이었으며, 여자가 34.3%(316명)를 차지하였다.

학력은 대졸이상이 42.4%로 가장 많았으며(391명), 고졸 31.0%(286명), 초등학교 졸업 13.4%(124명), 중졸 7.3%(67명), 무학 6.0%(55명) 이었다.

직업은 회사원과 공무원이 38.3%(351명)로 가장 많았

<표 1> 일반적 특성

				(n=923명)	
특 성	구 분		실수(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연 령	20세	~ 29세	93(10.1)	45.2±13.8 범위: 20~93세	
	30세	~ 39세	272(29.5)		
	40세	~ 49세	236(25.6)		
	50세	~ 59세	176(19.1)		
	60세이상		145(15.7)		
성 별	남		606(65.7)		
	여		316(34.3)		
학 력	무	학	55(6.0)		
	초	졸	124(13.4)		
	중	졸	67(7.3)		
	고	졸	286(31.0)		
	대	졸 이 상	391(42.4)		
직 업	교	사	225(24.5)		
	회 사 원 및 공 무 원		351(38.3)		
	자 영 업 및 기 타		133(14.5)		
	농	업	128(13.9)		
	무	직	81(8.8)		

* 실수(백분율)은 무응답자를 제외한 것임.

으며, 교사 24.5%(225명), 자영업 및 기타14.5%(133명), 농업 13.9%(128명)순이었으며, 직업이 없는 경우도 8.8%(81명)를 차지하였다.

2. 성인의 흡연률

진안군 지역 성인의 흡연률은 <표 2>와 같다.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대상자는 36.9%(340명)이었다. 과거에는 담배를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 대상자는 9.4%(87명)이었으며, 과거와 현재에 전혀 담배를 피우지 않은 대상자는 53.6%(494명)이었다.

따라서 진안군 지역 성인의 흡연률은 36.9%이며, 금연률은 63.0%(581명)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률의 차이는 <표 3>과 같다.

연령에 따른 흡연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chi^2=12.5$, $df=4$, $p=.01$), 가장 높은 흡연률을 보인 집단은 60세 이상으로 흡연률이 42.8%였으며, 40~49세의 흡연률은 42.4%, 50~59세는 38.9%, 30~39세는 30.6%, 20~29세는 29.0%이었다.

성별에 따른 흡연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chi^2=265.2$, $df=1$, $p=.00$), 남자의 흡연률은

<표 2> 성인의 흡연률

			(n=923명)	
흡 연 여 부	실수	백분율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494	53.6		
과거에는 담배를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다	87	9.4		
현재 담배를 피운다	340	36.9		

* 실수(백분율)은 무응답자를 제외한 것임.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률의 차이

(n=923명)

특성	구분	흡연자 실수(백분율)	비흡연자 실수(백분율)	χ^2 값	df	p
연령	20-29세	27(29.0)	66(71.0)	12.5	4	.01
	30-39세	83(30.6)	188(69.4)			
	40-49세	100(42.4)	136(57.6)			
	50-59세	68(38.9)	107(61.1)			
	60세 이상	62(42.8)	83(57.2)			
성별	남	336(55.5)	269(44.5)	265.2	1	.00
	여	3(1.0)	312(99.0)			
학력	무학	19(34.5)	36(65.5)	22.3	4	.00
	초졸	45(36.6)	78(63.4)			
	중졸	30(44.8)	37(55.2)			
	고졸	132(46.2)	154(53.8)			
직업	대졸 이상	114(29.2)	276(70.8)	20.7	4	.00
	교사	58(25.8)	167(74.2)			
	회사원 및 공무원	145(41.5)	204(58.5)			
	자영업 및 기타	51(38.3)	82(61.7)			
	농업	59(46.1)	69(53.9)			
	무직	26(32.1)	55(67.9)			

* 무응답자를 제외한 것임.

55.5%, 여자의 흡연률은 1.0%이었다.

학력에 따른 흡연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chi^2=22.3$, $df=4$, $p=.00$), 가장 높은 흡연률을 보인 집단은 고졸의 학력으로 46.2%의 흡연률을 보였으며, 중졸은 44.8%, 초졸은 36.6%, 무학은 34.5%, 대졸이상은 29.2% 이었다.

직업에 따른 흡연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chi^2=20.7$, $df=4$, $p=.00$), 가장 높은 흡연률을 보인 집단은 농업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로 흡연률이 46.1%, 회사원 및 공무원은 41.5%, 자영업 및 기타는 38.3%, 무직은 32.1%, 교사는 25.8%이었다.

3. 흡연자의 흡연 습관

현재 흡연자 340명의 흡연 습관을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평균 흡연시작 연령은 21.8세이었으며, 최소 11세에서부터 최고 50세까지 있었다. 대상자의 41.5%는 16~20세, 40.0%는 21~25세, 14.1%는 26세 이상 되어서 흡연을 시작하였으며, 4.4%는 15세 미만부터 흡

연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흡연자의 81.5%는 16~25세 사이 청년기에, 4.4%는 15세 미만의 시기, 대략 초등학교 시절부터 흡연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흡연지속기간은 24.2년이었으며, 최소 1년에서 최고 78년까지 있었다. 대상자의 51.5%는 11~20년 동안 흡연을 지속하고 있었으며, 21~30년 동안 흡연을 해온 대상자는 15.0%, 31년 이상 흡연자는 13.8%, 6~10년 흡연자는 12.6%, 5년 미만의 흡연자는 7.1%이었다.

흡연을 호기심 또는 멋으로 시작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스트레스 해소 31.2%,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 26.5%, 부모나 가족이 흡연하는 모습을 보고 배운 경우 5.7% 순 이었고, 기타 반항심, 체중조절, 어른 같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시작한 경우는 3.0%이었다.

하루에 담배를 11~20개피 정도 피우는 경우 59.0%로 가장 많았으며, 21~30개피 17.4%, 10개피이하가 16.5%로 나타났고, 30개피 이상의 과량 흡연자도 7.1%를 차지하였다.

흡연하는 담배의 종류는 독성이 보통인 담배가 47.8%를 가장 많이 피우고 있었으며, 순한 담배는 46.9%,

〈표 4〉 흡연자의 흡연습관

(n=340명)

특 성	구 분	실 수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흡연시작연령	15세 미만	15	4.4	21.8±4.3 범위: 11-50세
	16 - 20세	141	41.5	
	21 - 25세	136	40.0	
	26세 이상	48	14.1	
흡연지속기간	5년 미만	24	7.1	24.2±14.2 범위: 1-78년
	6 - 10년	43	12.6	
	11 - 20년	175	51.5	
	21 - 30년	51	15.0	
	31년 이상	47	13.8	
흡연시작동기	호기심 또는 벗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	100	33.6	
	스트레스 해소	79	26.5	
	부모나 가족의 흡연 모습보고 배움	93	31.2	
	기 타	17	5.7	
	기 타	9	3.0	
흡연량	10개피 이하	56	16.5	
	11 - 20개피	200	59.0	
	21 - 30개피	59	17.4	
	30개피 이상	24	7.1	
담배종류	순한 담배	159	46.9	
	보통 담배	162	47.8	
	독한 담배	18	5.3	
담배연기	깊게 흡입한다	157	46.3	
흡입습관	얕게 흡입한다	166	49.0	
	연기를 삼키지 않는다	16	4.7	

* 실수, 백분율은 무응답자를 제외한 것임.

5.3%는 독한 담배를 흡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연기를 얕게 흡입하는 경우가 49.0%로 가장 많았고, 깊게 흡입하는 경우가 46.3%, 연기를 삼키지 않는 경우는 4.7%이었다.

4. 흡연자의 흡연 동기요인

흡연자의 흡연 동기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5〉과 같다. 흡연 동기요인은 흡연관련 행동특성에 따라 7가지로 분류되며, 전체 행동 특성의 총 평균 평점은 2.78±1.02점이었다.

흡연 동기요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부정

적 정서 감소" 요인(3.27±1.00)이었으며, "불유쾌한 습관(2.87±1.02)", "중독(2.84±1.06)", "습관(2.74±1.12)", "폐락(2.70±1.04)", "자극(2.59±0.90)", "감각-운동만족(2.42점±0.97)"요인 순이었다.

부정적 감정 감소 요인 중 높은 점수를 보인 행동특성은 "화가 날 때 담배를 피운다(3.91점)", "울적할 때 담배를 피운다(3.87점)",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담배를 피운다(3.82점)", "심기가 불편할 때 담배를 피운다(3.71점)", "외로울 때 담배를 피운다(3.61점)", "어떤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할 때 담배를 피운다(3.48점)", "담배를 피우면 마음이 편해진다(3.14점)", "담배를 피우면 주의 집중이 잘 된다(2.90점)", "부끄럽거나 당

〈표 5〉 흡연자의 흡연 동기 유형

		(n=340명)
흡연동기유형	행 동 특 성	평균±표준편차
부정적 정서 감소		3.27±1.00
	화가 날 때 담배를 피운다	3.91±.81
	울적할 때에 담배를 피운다	3.87±.89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담배를 피운다	3.82±.83
	심기가 불편할 때 담배를 피운다	3.71±.99
	외로울 때 담배를 피운다	3.61±1.01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담배를 피운다	3.48±1.13
	담배를 피우면 마음이 편해진다	3.14±1.05
	담배를 피우면 주의집중이 잘 된다	2.90±1.00
	부끄럽거나 당황할 때 담배를 피운다	2.81±1.15
	담배없이 살수 없다	2.37±1.08
	손에 담배가 없으면 안절부절 해진다	2.36±1.09
불유쾌한 습관		2.87±1.02
	담배 맛이 불쾌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배를 피운다	3.40±1.04
	담배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피우고 지낼 수 있다	2.88±1.07
	내가 담배를 정말 피우고 싶어서 피운 것이 아니다	2.69±1.07
	담배 연기를 일단 내뿜으면 맛이 떨어진다	2.50±.88
중독		2.84±1.06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3.63±.85
	담배를 피우지 않을 때 보다 담배를 피우는 순간이 더 만족스럽다	3.08±1.08
	별 어려움 없이 담배를 끊을 수 있다	3.25±1.05
	일시적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담배 생각이 간절하다	2.95±1.18
	아침에 일어나자 마자 담배를 피운다	2.85±1.32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즐겁지 못하다	2.38±.89
	담배없이 살 수 없다	2.37±1.08
	담배불을 붙이는데서 즐거움을 느낀다	2.18±1.00
습관		2.74±1.12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운다	3.61±1.02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담배를 피우곤 한다	2.88±1.25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담배불을 붙이곤 한다	2.70±1.22
	언제 담배를 태워 물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담배를 피운다	2.37±1.22
	담배만 물고 있을 뿐 연기를 들이 마시지 않는다	2.13±.87
쾌락		2.70±1.04
	마음이 편안할 때 담배를 즐긴다	3.26±1.11
	담배를 피우면 마음이 즐겁고 편안해 진다	3.14±1.05
	담배 연기를 깊숙이 들이마실 때 가장 담배 맛이 좋다	2.87±1.07
	나에게 담배는 쾌락을 가져다 줄 수 있다	2.47±1.06
	담배 맛을 즐길 수 있을 때에만 피운다	2.46±.96
	감기가 들거나 목이 아플 때 담배를 즐긴다	2.40±1.10
	하루 중 특정한 때에만 담배를 피운다	2.33±.93
자극		2.59±.90
	기분 전환을 위하여 담배를 피운다	3.58±.97
	담배를 피우면 활기가 생긴다	2.61±.98
	담배를 으시대기 위해 피운다	1.57±.76
감각-운동만족		2.42±.97
	담배를 안피울 때 머리가 더 맑은 것 같다	3.35±1.05
	혀와 입술로 담배의 촉감을 즐긴다	2.27±.95
	담배 연기를 바라보는 것이 즐겁다	2.11±.99
	담배를 만지작 거리는 것이 즐겁다	1.95±.88
총평균		2.78±1.02

〈표 6〉 니코틴 의존도에 따른 분포

		(n=340명)		
특 성	구 분	실 수	백분율(%)	
니코틴 의존도	낮은 편	93	33.5	
	높은 편	134	48.2	
	매우 높은 편	51	18.4	
	총 점	10.57±2.11		

* 무응답자를 제외한 것임.

황할 때 담배를 피운다(2.81점)” 등이었다.

불유쾌한 습관 요인 중 높은 점수를 보인 행동특성은 “담배 맛이 불쾌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배를 피운다(3.40점)”, “담배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피우고 지낼 수 있다(2.88점)”, “내가 담배를 정말 피우고 싶어서 피운 것이 아니다(2.69점)” 등이었다.

중독 요인 중 높은 점수를 보인 행동특성은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3.63점)”, “별 어려움 없이 담배를 피울 수 있다(3.25점: 점수가 높을수록 담배가 끊기 어려움을 의미함)”, “담배를 피우지 않을 때 보다 담배를 피우는 순간이 더 만족스럽다(3.08점)”, “일시적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담배 생각이 간절하다(2.95점)”, “아침에 일어나자 마자 담배를 피운다(2.85점)” 등이었다.

습관 요인 중 높은 점수를 보인 행동특성은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운다(3.61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담배를 피우곤 한다(2.88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담뱃불을 붙이곤 한다(2.70점)” 등이었다.

쾌락 요인 중 높은 점수를 보인 행동특성은 “마음이 편안할 때 담배를 즐긴다(3.26점)”, “담배를 피우면 마음이 즐겁고 편안해 진다(3.14점)”, “담배 연기를 깊숙이 들이 마실 때 가장 담배 맛이 좋다(2.87점)” 등이었다.

자극 요인 중 높은 점수를 보인 행동특성은 “기분전환을 위해 담배를 피운다(3.58점)”, “담배를 피우면 활기가 생긴다(2.61점)”이었다.

감각-운동만족 요인 중 높은 점수를 보인 행동특성은 “담배를 안 피울 때 머리가 더 맑은 것 같다(3.35점)”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3.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낸 행동특성을 중심으로 흡연 동기 요인을 설명하자면, 흡연자

들은 가장 흔하게는 화가 날 때, 울적할 때,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심기가 불편할 때, 외로울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부정적인 정서 감소를 위해,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에 의해, 습관적으로, 기분 전환을 위해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니코틴 의존도

흡연자의 니코틴 의존도 조사 결과는 〈표 6〉과 같다. 니코틴 의존도 점수는 총 16점 만점에 10.57±2.11점으로, 진안군 지역 성인 흡연자의 니코틴 의존도는 전체적으로 “높은 편”에 해당하였다. 흡연자의 니코틴 의존도를 총점 7~9점의 “낮은 편”, 10~12점의 “높은 편”, 13점~16점의 “매우 높은 편”으로 그 집단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가장 많아 48.2%(134명)이었으며, “낮은 편”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33.5%(93명), “매우 높은 편”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18.4%(51명)였다.

흡연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니코틴 의존도의 차이는 〈표 7〉와 같다.

연령에 따른 니코틴 의존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20, p=.31$). 따라서 니코틴 의존도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니코틴 의존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74, p=.46$). 따라서 니코틴 의존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니코틴 의존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49, p=.21$). 따라서 니코틴 의존도는 학력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니코틴 의존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표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니코틴 의존도의 차이

(n=340명)

특성	구분	평균±표준편차	t 또는 F	df	p
연령	20-29세	9.81±1.68	1.20	4	.31
	30-39세	10.93±2.17			
	40-49세	10.51±1.97			
	50-59세	10.59±2.16			
	60세 이상	10.52±2.30			
성별	남	10.53±2.11	.74	275	.46
	여	9.67±2.08			
학력	무학	11.29±2.39	1.49	4	.21
	초졸	10.63±2.22			
	중졸	9.96±1.66			
	고졸	10.40±2.13			
	대졸이상	10.80±2.07			
직업	교사	10.42±2.07	1.41	4	.23
	회사원 및 공무원	10.87±2.08			
	자영업 및 기타	10.00±2.09			
	농업	10.58±2.24			
	무직	10.43±2.01			

* 무응답 및 비해당자를 제외한 것임

의하지 않았다($F=1.41, p=.23$). 따라서 니코틴 의존도는 직업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안군 지역 성인의 니코틴 의존도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른 니코틴 의존도의 차이는 〈표 8〉과 같다.

흡연시작연령에 따른 니코틴 의존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66, p=.18$). 따라서 니코틴 의존도는 흡연시작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지속기간에 따른 니코틴 의존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2.11, p=.08$). 따라서 니코틴 의존도는 흡연지속기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시작동기에 따른 니코틴 의존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2.39, p=.05$). 따라서 니코틴 의존도는 흡연시작동기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량에 따른 니코틴 의존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F=55.15, p=.00$), 하루에 담배 11개피 이상 흡연하는 집단이 10개피 이하 흡연 집단보다 니코틴 의존도가 높았으며, 21개피 이상 흡연하는 집단이 20개피 이하 흡연 집단보다 니코틴 의존도가 높았다. 따라서 하루에 흡연하는 담배량이 많은 집단일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하는 담배의 종류에 따른 니코틴 의존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7.57, p=.00$), 독한 담배를 흡연하는 집단이 독성이 순하거나 보통인 담배를 흡연하는 집단보다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연기 흡입습관에 따른 니코틴 의존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F=38.92, p=.00$), 담배연기를 깊게 흡입하는 집단이 얇게 흡입하거나 삼키지 않는 집단보다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흡연 습관에 따른 니코틴 의존도의 차이는 흡연량, 담배의 종류, 담배연기 흡입습관에 따라 통계적

〈표 8〉 흡연 습관에 따른 니코틴 의존도의 차이

(n=340명)

특 성	구 분	평균±표준편차	F	d.f	p	Scheffé Test
흡연시작연령	15세 미만	11.67±2.53	1.66	3	.18	
	16 - 20세	10.55±2.12				
	21 - 25세	10.39±2.07				
	26세 이상	10.69±1.96				
흡연지속기간	5년 미만	9.56±1.41	2.11	4	.08	
	6 - 10년	10.00±1.85				
	11 - 20년	10.69±2.09				
	21 - 30년	10.98±2.40				
	31년 이상	10.63±2.16				
흡연시작동기	호기심 또는 몇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	11.05±2.10 10.16±2.16	2.39	4	.05	
	스트레스 해소	10.51±2.14				
	보고 배움	11.54±1.76				
	기 타	10.78±2.11				
흡연량	10개피 이하	8.42±1.15	55.15	3	.00	21개피 이상 > 20개피이하 11개피 이상 > 10개피이하
	11 - 20개피	10.27±1.68				
	21 - 30개피	12.19±1.97				
	30개피 이상	13.18±1.74				
담배종류	순한 담배	10.24±2.06	7.57	2	.00	독한 담배 > 순한 담배 보통인 담배
	보통 담배	10.68±2.04				
	독한 담배	12.31±2.30				
담배연기 흡입습관	깊게 흡입한다	11.63±1.95	38.92	2	.00	깊게 흡입 > 얇게 흡입, 삼키지 않음
	얇게 흡입한다	9.72±1.79				
	연기를 삼키지 않는다	9.00±1.90				

* 무응답자를 제외한 것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흡연량이 많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적은 집단보다 니코틴 의존도가 높았으며, 담배의 독성이 독한 담배를 흡연하는 집단이 순하거나 보통인 담배를 흡연하는 집단보다 니코틴 의존도가 높았으며, 담배연기를 깊게 흡입하는 집단이 얇게 흡입하거나 담배 연기를 삼키지 않는 집단보다 니코틴 의존도가 높았다

흡연 동기 요인과 니코틴 의존도와 상관관계는 〈표 9〉와 같다.

부정적 정서 감소요인과 니코틴 의존도와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서($r=.32, p=.00$), 부정적인 정서 감소를 위해 흡연하는 사람일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유쾌한 습관요인과 니코틴 의존도와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r=-.03, p=.60$), 불유쾌한 습관으로 흡연하는 것과 니코틴 의존도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 요인과 니코틴 의존도와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r=-.04, p=.57$), 중독으로 인하여 흡연하는 것과 니코틴 의존도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습관 요인과 니코틴 의존도와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서($r=.37, p=.00$), 습관적으로 흡연을 하는 사람일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쾌락 요인과 니코틴 의존도와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서($r=.34, p=.00$), 쾌락을 위하여 흡

〈표 9〉 흡연 동기 요인과 니코틴 의존도와 상관관계

(n=340명)-

흡연동기요인	니코틴 의존도	
	r	p
부정적 정서 감소	.32	.00
불유쾌한 습관	-.03	.60
중독	-.04	.57
습관	.37	.00
쾌락	.34	.00
자극	.14	.03
감각-운동만족	.23	.00

* 무응답자를 제외한 것임.

〈표 10〉 흡연자의 금연 의지

(n=340명)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현재 금연 의사	꼭 끊겠다	39	11.6
	가급적 끊겠다	180	53.4
	아무 생각도 없다	19	5.6
	별로 끊고 싶지 않다	81	24.0
	절대로 끊고 싶지 않다	18	5.4
금연을 생각하는 이유	건강상의 이유	224	79.4
	도의적 책임	10	3.5
	사회적 제약	11	3.9
	기타	37	13.2
금연을 시도한 횟수	시도하지 않음	107	32.1
	한번 시도	81	24.3
	두번 시도	54	16.2
	세번 시도	43	12.9
	네번 이상	48	14.5
금연실패 이유	금연 동기부족	29	12.9
	의지력이 약해서	127	56.7
	금단증상때문	9	4.0
	음주때문	33	14.7
	기타	26	11.7
금연 권고자	친구나 동료	47	14.8
	부모·형제	33	10.4
	배우자·자녀	168	52.8
	의료인	9	2.8
	기타	61	19.2
금연교육의 필요성	절대 필요하다	29	14.6
	조금 필요하다	127	64.2
	잘 모르겠다	9	4.5
	필요없다	33	16.7

* 실수와 백분율은 무응답자 및 비해당자를 제외한 것임.

연하는 사람일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극 요인과 니코틴 의존도와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서($r=.14, p=.03$), 자극을 위하여 흡연하는 사람일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각-운동 만족 요인과 니코틴 의존도와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서($r=.23, p=.00$), 감각-운동 만족을 위하여 흡연하는 사람일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정적 정서 감소, 습관, 쾌락, 자극, 감각-운동 만족을 위하여 흡연하는 사람일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 흡연자의 금연 의지

현재 흡연자 340명의 흡연실태 파악을 위한 금연관련 특성 조사 결과는 <표 10>과 같다

현재 금연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가급적 끊겠다는 경우가 53.4%로 가장 많았으며, 꼭 끊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11.6%이었다. 별로 끊고 싶지 않거나 절대로 끊고 싶지 않다는 의견은 각각 24.0%, 5.4%이었다. 따라서 흡연자의 65.0%는 금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29.3%는 금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을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이 79.4% 이었다. 대상자의 67.9%는 한 번 이상 금연을 시도해 보았으며, 대상자 중 14.4%는 네번 이상 금연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대상자는 32.1%이었다.

금연을 한번 이상 시도해 보았던 226명의 대상자 중 금연에 실패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장 큰 이유는 금연 지속을 위한 의지력 부족(56.7%)때문 이었으며, 음주(14.7%), 금연 동기부족(12.9%)등 이었다.

대상자 중 52.8%는 배우자나 자녀로부터 금연을 권고 받고 있었으며, 친구나 동료로부터 14.8%, 부모나 형제로부터 10.4%이었다. 의료인으로부터 금연을 권고 받은 대상자는 2.8%뿐 이었다.

금연교육이 조금 또는 절대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78.8%이었으며, 필요 없다는 의견을 가진 대상자는 16.7%이었다.

V. 결론 및 제언

진안군 지역 성인의 흡연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998년 12월 28일부터 1999년 1월 6일 까지 진안군 11개 읍면 소재지 중 무작위로 선정된 9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923명을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접으로 자료를 수집 하고, SPS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진안군 지역 성인의 흡연률은 36.9%였으며, 일반적 특성 중 연령, 성별, 학력, 직업에 따라 흡연률에 차이가 있었다. 40세 이상 연령 집단에서 흡연률은 약 40%정도(38.9~42.8%) 였으며, 성별로는 남자의 흡연률(55.5%)이 여자(1.0%)보다 높았으며, 고졸의 학력을 가진사람의 흡연률이 가장 높았으며(46.2%), 직업적으로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흡연률(46.1%)이 높았다. 따라서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금연사업은 흡연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던 40세 이상, 남자, 고졸 학력자, 농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흡연자 340명의 흡연 습관을 조사한 결과, 평균 흡연시작연령은 21.8세 였으며, 흡연자의 81.5%는 16-25세 사이 청소년기에, 그리고 4.4%는 이보다 빠른 15세 미만의 시기, 대략 초등학교 시절부터 흡연을 시작하였다. 평균 흡연지속기간은 24.2년(± 14.2)이었으며, 대상자의 80.3%가 11년 이상 장기간 흡연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을 하게된 대부분의 동기는 호기심 또는 멋(33.6%), 스트레스 해소(31.2%),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26.5%)등 이었으며, 일일 흡연량은 한 갑 이하인 경우(75.5%)가 가장 많았고, 한 갑이상 흡연하는 대상자도 24.5%였다. 흡연하는 담배의 종류는 독성이 보통(47.8%)이거나 순한 것(46.9%)을 선택하고 있었으며, 담배 연기는 알게 흡입(49.0%)하거나 깊게 흡입하는 경우(46.3%)가 대부분 이었다. 성인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볼 때, 금연교육은 주로 중·고등 학교 시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흡연 예방 차원에서의 교육은 초등학교 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된다.

흡연 동기 요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부정적 정서 감소" 요인(3.27 ± 1.00)이었으며, "불유쾌한 습관(2.87 ± 1.02)", "중독(2.84 ± 1.06)", "습관(2.74 ± 1.12)", "쾌락(2.70 ± 1.04)", "자극($2.59 \pm .90$)", "감

각-운동만족(2.42점±.97)"요인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3.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낸 행동 특성을 중심으로 흡연 동기 요인을 보면 흡연자들은 가장 흔하게는 화가 날 때, 울적할 때,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심기가 불편할 때, 외로울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부정적인 정서 감소를 위해,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에 의해, 습관적으로, 기분 전환을 위해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흡연을 자극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 부정적 정서 감소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흡연과 같은 부정적인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전략의 습득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진안군 지역 성인의 니코틴 의존도가 10.57점으로 전체적으로 "높은 편"에 해당하였다. 니코틴 의존도 점수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니코틴 의존도가 "낮은 편"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33.5%, "높은 편"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48.2%, "매우 높은 편"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18.4%였다. 흡연자의 금연을 위한 접근은 니코틴 의존도에 따라 달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니코틴 의존도가 "낮은 편"인 대상자에게는 의지를 키워주는 접근을 통해서 금연을 유도하고, "높은 편"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에게는 적절한 금연법을 터득하도록 함으로써 금연을 도우며, "매우 높은 편"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에게는 금연을 시도할 경우 금단증상에 시달릴 수 있으므로 적절한 금연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금연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니코틴 의존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흡연 습관 중 흡연량이 많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적은 집단보다 니코틴 의존도가 높았으며, 담배의 독성이 독한 담배를 흡연하는 집단이 순하거나 보통인 담배를 흡연하는 집단보다 니코틴 의존도가 높았으며, 담배연기를 깊게 흡입하는 집단이 얇게 흡입하거나 담배 연기를 삼키지 않는 집단보다 니코틴 의존도가 높았다. 따라서 흡연자의 니코틴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의 일환으로 일일 흡연량을 줄이고, 독성이 보통 또는 순한 담배를 사용하며, 담배 연기를 얇게 흡입하거나 삼키지 않는 흡연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흡연 동기 요인과 니코틴 의존도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흡연을 부정적 정서 감소, 습관, 쾌락, 자

극, 감각-운동 만족을 위하여 흡연하는 사람일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자의 금연 의지를 조사한 결과, 흡연자의 65.0%는 금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29.3%는 금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을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때문이었으며, 대상자의 67.9%는 한번 이상 금연을 시도해 보았으나 실패하였으며, 금연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연 지속을 위한 의지력 부족 때문이었다. 대상자 중 52.8%는 배우자나 자녀로부터 금연을 권고 받고 있었으며, 의료인으로부터 금연을 권고 받은 대상자는 2.8%뿐 이었다. 금연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78.8%였다. 따라서 성인을 위한 금연사업을 계획할 때 금연 의사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금연교육을 통하여 금연 지속을 위한 의지력을 증대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며, 의료인들이 금연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대상자의 건강 증진과 질병발생 예방을 위해 금연 권고자로서의 역할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상희(1997). 일부 대학생의 흡연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상영(1994). 농어촌과 중소도시 국민학교 6년생의 흡연 실태. 경희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인철(1991). 암예방과 환경영향. 의료보현, 1, 94-103.

김일순(1987). 흡연과 건강. 대한의학협회지, 30, 825-830.

김일순(1991). 알고계십니까? 담배의 해독을.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김재전(1992). 효과적인 금연치료 가이드. 대한의학협회.

박선섭(1989). 흡연과 건강관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6(2), 66-75.

보건사회부(1990). 우리나라의 흡연률과 담배로 인한 건강장해. 보건주보, 제768호.

보건사회부(1990). 간접흡연에 의한 건강피해. 보건주보, 제770호.

보건사회부(1993).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흡연양상. 보건주보, 제903호.

- 배상숙(1994). 성인의 흡연동기 및 니코틴 의존도. 경희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영소(1991). 청소년 흡연동기 요인과 성격 특성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계은(1992). 여고생의 흡연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흡연지식, 흡연태도, 건강 행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진작(1998). 흡연 유해 환경 실태와 대책. 한국금연운동협의회.
- 정해룡(1988). 고교생들의 생활환경에 따른 흡연실태와 그 지도교찰에 대한 연구 - 마산 시내 남자 고교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안군 보건소(1998). 금연교육교재.
- 진안군 보건소(1998). 금연 지침서.
- 지연옥(1993). 군흡연자의 금연행위 예측을 위한 Theory of Planned Behavior 검증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1992). 통계로 본 한국의 발자취.
- 현경순(1995). 일부 공무원들의 흡연유형에 관한 고찰. 한국보건간호학회지, 9(2), 33-42.
- Costa, P.T. McCrae, R.R. & Bosse, R(1980). Smoking motive factors : A review and replication. The International of the Addictions, 15, 537-549.
- Fagerstrom, R(1990). Nicotine addiction and its assessment. Ear Nose Throat J, 69(11), 763-765.
- Hirayama, T(1991). Tobacco or health, a key issue for everybody. Proceedings of 2nd Asia-Pacific Conference on tobacco or health 1991, Seoul, Korea, 15-22.

ABSTRACT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Adult-smoking in a Region

Chong, Young-sook (Nursing Department,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of the adult-smoking in Chinan County, I used self-reporting questionnaires among 923 residents living in nine districts selected at random among the sites of eleven eup-myons from December 28, 1998 to January 6, 1999, collected data and analyzed using SPSS.

The smoking rate of adults in Chinan County was 36.9%.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moking rate according to the age, gender, education and job among general characteristics. The smoking rate in group of above 40s was about 40% and that of the male took 55.5% which was higher than that of female and the smoking rate of the people having high-school education was the highest(46.2%). With regard to the career, the smoking rate of the farmers ranked first(46.1%). Therefore anti-smoking business for smokers should be focused on above 40 years old, males, people having high school education and farmers.

As the result of the survey of smoking habits of 340 people who smoke currently, the average smoking begining age was 21.8 and 81.5% among them was between 16-25 years old, 4.4% was under 15, during around the elementary school. Most motives to smoke were as followed: curiosity or taste(33.6%), relief of stress (31.2%), peer presure(26.5%) And considering the amount of the cigalette which is smoked per day, the case which is less than a pack of cigarettes was highest as 75.5% and the people who smoke over one pack of cigarettes took 24.5%. As for the kind of tobacco which is smoked, how to smoke and the desire for the smoking, most case was toxin was moderate(47.8%) or mild(46.9%), shallowly(49.0%) or deeply(46.3%) and under stress(33.4%), after meals(27.8%), during drink(15.7%) and so on.

The highest point marked among the factors of smoking motives was "the reduce of negative emotion" (3.27 ± 1.00), followed by "uncomfortable habits" (2.87 ± 1.02), "addiction" (2.84 ± 1.06), "habit" (2.74 ± 1.12), "pleasure" (2.70 ± 1.04), "stimulus" ($2.59 \pm .90$), "sensation- exercise satisfaction" ($2.42 \pm .97$). Smokers smoke to reduce the negative emotions when angry in most

common case, depressed, anxious, uncomfortable, lone, ashamed or embarrassed, and intend to solve the certain problem, etc. Other motives are uncomfortable habit, addiction, habit, pleasure and the pursuit of stimulus.

The level of nicotine dependence of adults in Chinan County was 10.57 which amount to "high" wholly.

As the result of the level of nicotine dependence score, the people who are low in the level of nicotine was 33.5%, the people who are high was 48.2%, very high was 18.4%. The approach for anti-smoking for smokers should be conduct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 nicotine. For the people who are in low level of nicotin dependence the prohibition of the smoking should be guided through the approach to foster strong will, for those who are in "high" by acquiring proper method for the prohibition of smoking, and for those who are "very high" the anti-smoking should be induced by providing proper program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the suffer from abstinence syndrome.

The difference of the level of nicotine with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objects had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e difference of the level of nicotine dependence accompanied by smoking habit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the amount of smoke, the kind of tobacos, smoke inhale habit. In other words, the group of heavy smokers had higher level of the nicotine dependence than that of the light smokers relatively and the group which smoke strong taboaco has hgher level of nicotine than that of which smoke mild or moderate. And the group of smokers who smoke deeply has higher level of nicotine than that who smoke shallowly or nonswallow. Aa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smoking motive factors and the level of nicotine, there was the indication that people who smoke for the decrease of the negative emotion, habit, pleasure, stimulus, sensation-exercise satisfaction had high level of the nicotine dependence.

As the result of the anti-smoking will of smokers, 65.0% of them had prohibition of smoking will, 29.3% had no will to quit smoke.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anti-smoking was health, 67.9% had experience to try to quit smoke and the biggest reason to fail to quit smoking was the lack of the will power to keep anti-smoking. 52.8% of them were advised to stop smoking from their spouses or children, only 2.8% were by medical .

The people who have the opinion to need anti-smoking education were 69.6%. Therefore when the business for the hygine of the mouth for adult is set, it should be centered on the people who have intention of prohibition of the smoking and help to quit smoking by way of other affirmative counter-program not smoking under stress.